화내야 할 땐 화내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⑱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 관련 경전 해석의 오류

흔히 보면 불자들이 경전의 가르침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해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경전 해석과 관련해 보충 설명을 좀 하고자 한다. 자신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성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겠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불교서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는 오해
화내선 안 되는 경우 제외하고 화내야

극단적 피해에도 무대응 참음은 잘못돼
〈금강경〉 곡해, 법에 대한 집착인 법상

상황 맞게 가르침 적용할 수 있어야 해
억울할 땐 하소연하고 정당히 대응해야

화내지 말라는 데 대한 문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해를 입혀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저항하는 것도 화내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교를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화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 한다.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불자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전의 가르침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전의 글귀에 얽매여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화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주로 선정에 들어가거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는 악업을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잘못 해석되는 경전이 많지만 화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은 〈금강경〉일 것이다. 〈금강경〉의 제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에서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가리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궁녀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었다는 이유로 인욕선인의 사지를 마디마디 베는 고통을 주었는데도, 인욕선인은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없었으며 조금도 성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금강경〉의 이 부분을 읽는 불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심한 피해를 보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금강경〉의 이 부분은 내면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에 대한 가르침이지 현실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대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라든가 '내 몸'이라는 생각, 즉 아상(我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행 단계에서 넘어야 할 최고의 과제라는 점을 과거 생의 이야기라는 형태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결론은 어떠한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반드시 경전의 사례처럼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죽거나 병신이 돼야 한다는 말이 된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수행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참아야 할 일이 있으면 참는 것이고,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싸우지 않고 참는다고 해서 곧바로 아상이 없다거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다. 내면적으로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바깥으로 상대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상이 없어도 상대방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아상이 있어도 상대방과 싸우지 못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면에서 아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터무니없이 공격하는데도 도인(道人)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명예욕 때문에, 혹은 싸우다가 얻어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싸우지 않더라도 아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어떠한 극단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상(法相)'이라고 한다. 법상이란 '법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로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 또는 종교적 가르침(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법(法)'이라고 한다)에 얽매여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곳에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금강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많이 읽기만 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화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서 〈금강경〉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보왕삼매론'에 나오는 다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가르침 역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는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화를 내거나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냥 참고 있으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말이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매우 많다. 언론에 사흘이 멀다 하고 대형 범죄 사건이 보도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보왕삼매론'은 약 600년 전 중국 명나라 초기, 우리나라의 고려 말·조선 초에 해당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의 봉건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말이다. 즉 같은 마을에서 어느 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는 부락공동체의 전근대사회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므로 굳이 내가 나서서 밝히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와 같이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닌지에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하소연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의 상황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한 사람을 정당화시켜 주어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심한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밝히려 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도 무조건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수관음기도도량
해동용궁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기장읍, 해동용궁사)
Fax (051)722-7333 이메일 : hd7744@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산 불국사
회 주 연봉 태현
주 지 중경 가섭
신도회장 김양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광주시 수레안길 22 ☎ (031)719-0408

